칼 럼

장 기 채 주 필

노인복지 확충으로 노인빈곤 막아야

한국은 전 세계에서 노인이 가장 가난한 나라다.

길어지는 노년… '할줌마' '할저씨'들의 삶이 고단해진다. 죄악 중에서 가장 악하고, 범죄 중에서 가장 독한 것이 빈곤이라 하지 않았던가.

지구촌 최악의 노인빈곤·노인불행·노인자살 일등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 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라고 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세계 최악의 노인빈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모두가 빈곤으로 가는 길이 유일한 미래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노인빈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국가들 중 잘사는 경제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OECD국가들 중 경제 순위로 보면 10위권 내에 들어간다. 전 세계 인구 중 25%정도가 식량난과 식수난을 겪고 있다는 지표를 보더라도 먹을 걱정과 마실 걱정이 없을 뿐 아니라 100만원을 호가가는 스마트폰이 넘쳐나는 사회다.

하지만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노인빈곤이 우리 사회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쨌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률이 49.6%로 OECD 평균인 12.6%보다 무려 4배에 달하는 수치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논하는 시점ㅇ서 나온 예상 밖의 놀라운 결과다. 현재의 노인층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일군 세대다.

또한 높은 자녀교육에 모든 것을 바쳐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주었다. 그러고도 대한민국 부모들의 자식사랑은 종교적 맹신에 가깝다.

자식 한 사람을 대학졸업까지 시키는데 드는 양육비가 대략 2억 7000여만 원이 든다는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그 교육열을 그저 칭송하기에는 마뜩치 않다고 봐야 한다.

바로 과도한 교육비 지출이 노후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캥거루족'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성인이 된 자녀의 경제적 뒷바라지까지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보니 노후대비는 뒷전이 되었고 정작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들의 무관심과 노인복지의 미비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슬프게도 우리나라 노인자살률 또한 OECD 회원국 중 1위다. 이는 노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반증한다.

예컨대 우리의 부모들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공교육비 사교육비로 지출해 고학력 자식 만들어 놓고 정작 부모들 스스로는 별 노후대책 없이 엉겁결에 노년을 살아야 한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 일본, 영국 등의 빈곤율은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만 유독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가족 간 유대를 중시하는 정통 가치관이 무너져 자식에게 기댈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 노인의 삶은 고달플 수밖에 없다.

돌이켜 보면 우리에게도 노인이 한집안의 기둥이자 가장으로 존경받던 시절이 있었다.

세계적 석학 아널드 토인비는 한국의 효(孝)사상과 경로사상을 '온 인류의 으뜸가는 사상'이라 말했다. 그런데 96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2014세계 복지지표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50위, 소득보장 80위, 건강상태 42위, 역량 19위, 우호적 환경에서는 54위라고 한다. 전체 1위는 노르웨이가 차지했고 스웨덴과 스위스가 그 뒤를 이었다.

미국은 8위 일본은 9위에 각각 올랐다. 이 자료에서는 역시 우리나라의 가장 취약한 영역은 '소득보장'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률을 말하는 '소득보장' 부분이 96개국 중 80위로 노인이 가난한 나라다.

노인이 살기 힘든 나라라는 현실이 몹시 부끄럽다. 게다가 노인이 가해자가 되는 강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노인빈곤의 명암을 드러내고 있다.

경찰청 통계는 65세 이상 노인 범죄가 매년 증가해 2013년에만 무려 7만7천여 건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노인들을 돌보지 않는 사회구조와 열악한 환경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이제 노인복지는 개인이나 가정의 범주를 넘어 국가적인 책무가 되었다.

토인비가 부러워한 우리의 정신문화를 되살려야 한다. 노인이 가난한 나라에서 노인이 행복한 나라로 가는 길을 우리 모두가 살피고 고민해야 한다.

社 說

송년회가 바뀌고 있다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송년회는 간단한 점심식사와 다과 등을 먹는 '런치파티'형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니 세태가 많이 변했음을 실감한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설문조사 플랫폼 두잇서베이와 함께 직장인들이 선호하거나 꺼리는 송년회 유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장 선호하는 '베스트 송년회' 유형 1위로는 간단한 점심식사 및 다과 등으로 대체하는 '런치파티'형(23.5%)이 꼽혔다.

이어 ▲ 그래도 술이 빠지면 섭섭하니 '딱! 한 잔만'형(21.9%) ▲ 상쾌한 맨정신에 귀가하는 '논 알콜'형(19.0%) ▲ 영화·공연 등을 관람하며 즐기는 '공연 관람'형(18.5%) ▲ 파티룸 등을 빌려 연말 느낌을 물씬 풍기는 '파티뿜뿜'형(12.5%) 등이 2~5위에 올랐다.

반대로 가장 꺼리는 '워스트 송년회' 유형으로는 조용하고 어색하기만 한 '고요한 침묵'형(23.5%)이 1위에 올랐다.

이어 ▲ 애인 없이 동성끼리 모이는 '남남여여'형(21.9%) ▲ 숙취 해소 음료가 필요한 '먹고 죽자'형(19.1%) ▲ 강압적인 참석 요구와 함께하는 '안 오기만 해'형(18.6%) 등이 달갑지 않은 송년회 유형에 올랐다.

응답자의 과반수인 56.3%는 송년회 참석이 부담된다고 밝혔다. 가장 큰 이유는 '과음하는 분위기'(27.7%)였다.

이어 '경제적 여유 부족'(17.2%), '크고 작은 장기자랑'(12.9%), '시간적 여유 부족'(12.8%),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12.0%), '송년사, 신년사 등 멘트 준비의 부담'(7.7%), '교통증'(5.8%), '드레스코드 등 참석 복장의 부담'(4.2%) 등이 이유로 지목됐다. 경제사정도 어려운데 실속있는 송년회로 건강도 챙기고 시간도 절약하는 뜻있는 모임이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배우는 千 字 文

執	잡을	집
熱	더울	열
願	원할	원
凉	서늘할	량

執熱願凉

▷뜻: 더우면 서늘하기를 원함.

기 고

박 상 래 여수소방서장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안전한 겨울나기

매서운 추위를 느끼게 하는 겨울철이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안전한 겨울을 나기 위해 매년 2월말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예방을 하여도 화재는 사소한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

특히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도 많다.

지난해 여수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180여건으로 이중 주택화재가 47건이 발생해 전체 화재발생의 26%를 차지했다.

또한 화재발생으로 인한 사망자도 5명이였으며 모두 주택에서 발생했다.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은 매년 반복되는 상황으로 정부는 2012년 2월에 관계법령(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을 개정하여 주택에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의무화 하였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초기 그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경보음을 발생시킴으로서 신속히 대피하게 할 수 있고 소화기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다.

이러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미루어서도 안 된다.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은 의외로 간단하다.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설치기준은 소화기의 경우 세대별로, 층별로 1개 이상이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면 된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가까운 대형할인마트나 온라인쇼핑몰을 통해서 쉽게 구입할 수가 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작은 행동을 실천한다면 우리가족은 물론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안전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논설실장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